



시멘트로 마을 공터에 불상과 마야부인상을 조성, 불교공원과 법당, 학교를 건립할 계획인 인도 메인뿌리지역의 나미간지 마을

우리는 선우·참여불교재가연대가 주최하고 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가 후원하는 인도불교 지원사업의 1차 지원대상에, 이미 결정된 인도 불가촉 천민을 돕기 위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메일 구입사업(달라이라마빙한 준비비 총 1만불 포함 2만불)을 비롯한 UP(Uttar Pradesh)주의 마을 세 곳의 공사가 선정됐다.

6개 단체 대표들은 10일 조계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칸노즈지역 바데뿌르 체브라무 마을의 불교공원과 학교조성 사업(1만5천불) △나비간지 지역 나미간지 마을 법당 건립 공사(5천불) △메인

인도불교지원 1차 3건 확정

우리는 선우·종단협 등 6개 단체 8~9월중 예산 집행

메일 구입비는 월말 티베트 망명정부 전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3년간, 총 15만불)까지 추진하는 △1인 수혜비율 1달러 지원 '개중운동 지원 사업'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법당 건립 및 불상 봉안 지원 △새가불교지도자 양성 사업 △불가촉 천민을 위한 자립 지원 △불가촉 천민지역에 티베트 난민 경작 메일지원 등 인

도불교 6대 지원사업에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인도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 : 02-745-7799, 후원계좌 : 조흥은행(계좌명=인도도기) 741-04-3659-50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a.com

1차 지원 대상사업

■ 칸노즈의 불교공원과 학교
100% 석가족이자 달리트(불가촉천민)로 구성된 마을, 칸노즈(Kannoz)에는 예전에 110 개의 법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주민들은 1994년 불상들이 출토된 땅(1800평)에 농사를 짓지 않고 학교(Sakaymoy Academy)와 법당, 불교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불교공원을 조성중인 이 지역 불교청년회 회장이 최근 헌도교도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었다.

■ 나미간지 마을의 법당
나미간지(Navigang) 마을의 약100세대 1500명 가량이 석가족인데 80%가 불교를 믿는다. 인근 마을 까지 약 55,000 주민의 33%가 석가족이며 15%가 달리트 계층이다. 찬드라 보드(Chandra Bouddh) 주축으로 지난 해 10월 마을 공터에 마야부인과 아기 부처님 그리고 불상을 시멘트로 조성해 예쁘게 페인트를 칠 했으며, 그 자리에 마을회관으로 쓸 법당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은 시간을 내어서 교실 한 개씩을 짓고 있다. 학교 안에는 석가족불교청년회(YBS, 회장 수레스)가 세운 법당이 있다. 현재 1200평에 교실 2개를 완성했으며, 3개는 미완성인 상태다.

■ 보가온 마을의 마하야마 아카데미
메인뿌리(Mainpuri)에서 25km 거리의 보가온(Bhonsan)마을에 위치. 1996년 15명의 마을 사람들이 땅을 기부하고 벽돌, 세멘트, 철근등 재료를 샀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

사찰의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 불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은 물론 타종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익도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찰이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불교의 위상은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귀의처로 격상될 것이다. 공익적 사찰모델을 제시해 본다.

공익적 사찰 모델은 ...

● 음악·전시회 등 문화 향유 장소
사찰은 더 이상 불자들이 찾는 곳이 아니다. 봄에는 봄꽃을 따라 가을엔 단풍을 보려는 산행객들이 모여들고, 꽃 축제, 산사음악회 등의 이름으로 전시회와 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심곡암의 문화축제나, 보림사·길상사의 사찰음악회는 대표적인 예다. 산사음악회는 절벽의 사암들을 음악이라는 방편으로 묶어내는 새로운 포교 방편이 되고 있다.

또 사찰마다 전시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잘 마당에 펼쳐 오가는 불자들이 잠시나마 둘러보고, 마음의 여유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찰도 늘고 있다. 절마다 전통차집이 자리를 잡아 방문객에게 향긋한 차향을 통해 산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기도 한다.

● 심신 안정 휴식처
전국 33개 사찰이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템플스테이가 내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상설화 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템플스테이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문화의 선양과 사찰수련회 및 주말수련회 등의 상설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문화공간으로 항상 열려있어야 타종교인도 부담없이 찾는 도량으로 환경·문화유적 보호에도 중심 역할

장점을 살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여러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 환경 파수꾼
우리 국토의 70%가 산이고, 산마다 절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절들은 산의 수호 신장 기능을 충실히 해왔고, 그 결과 사찰림과 같은 녹지는 전국토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실상사가 지리산 살리기에 나서고 인드라광생공공체를 만들어 생업운동을 벌이고, 귀농학교와 환경생태학교를 개교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해인사와 월정사, 석남사, 법어사가 개발로부터 가야산과 오대산, 천성산, 금정산 지키기에 나서는 등 전국 주요 사찰들이 산지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돋보이는 환경실천 운동이다. 특히 북한산 일대 사찰들이 북한산 편도 도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대표적인 환경운동 사례로 평가된다.

사찰이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가야 사찰환경과 문화재보호가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성 강화 싱크탱크로 육성”

김봉건 신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난 6월 정년퇴임한 조유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후임으로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이 9일 취임했다. 조유진 소장이 고고학 전공이었던 데 비해 김 소장은 '전통 중흥'을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고건축 전문가다.

미륵사탑 해체·복원사업 큰 기대 문화재 유형별 조사 연차적 실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이 9일 취임했다. 조유진 소장이 고고학 전공이었던 데 비해 김 소장은 '전통 중흥'을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고건축 전문가다. 김봉건 신임 소장은 "해체이나 고건축 등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조사가 이

남아 있다. 3층 밑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아마 미술사학계가 깜짝 놀랄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김 소장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과학적 구조진단을 적극 도입한 사람이다. 90년대 중반 '석굴암 균열 보도' 등으로 석굴암 안전이 문제가 됐을 때 컴퓨터 3차원 구조역학 조사를 석굴암 균열은 일반인들이 덧씌운 1.8m 두께의 콘크리트가 수축해서 생긴 것이 석굴암 자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우리 나라 최초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때 현지 조사를 나온 유네스코 전문가들에게 현장 설명을 했던 사람이 김 소장이기도 하다.

새로 취임한 김 소장에게는 문화재연구소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가장 큰 고민은 인력구조. 연구원이 100여 명이지만 절반이 임시고용직이다. 김 소장은 "문화재연구소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상은 초라하다"며 "전문성을 강화해 문화재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급이나 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는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7월중으로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편해 각종 조사 자료나 사업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임지만 강변한 마흔스븐 여행 - 해산소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파트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파트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太古思想研究 第5次 學術大會

◆ 기조강연 : 現代社會의 葛藤과 太古思想 - 無空(太古學會長)

한국불교 태고학회는 한국불교의 종조종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을 계승하여 어두운 이 시대와 사회에 빛을 던져 주고자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우리는 문명의 전환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에 대하여 태고국사의 사상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과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갈등에는 여러 양상이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태고사상은 한국불교의 갈등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자연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보산업 문명 시대에 태고사상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종교사회에서의 태고사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문명의 여러 문제와 세계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술행사를 통하여 태고사상이 교계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의 해소와 미래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정신으로 조망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6년 4월 17일
서기 2002년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무 공 합장

제 1 부
태고탄신 701주년(음 9월 21일)
* 대외 일자 : 불기 2546년(2002년) 10월 25일(음 9월 20일)
* 대외 장소 : 추후 발표함 [세종문화회관이나 불교방송국 중]
제 1주제 태고사상과 한국불교의 갈등현상 이봉춘 (동국대학교)
제 2주제 태고사상과 인간성성의 문제 최원자 (원광보건대학교)
제 3주제 종교간의 갈등과 태고사상 김용표 (동국대학교)
제 4주제 사회적 불평등문제와 태고사상 박경준 (동국대학교)
제 5주제 환경위기와 태고사상 장 익 (위덕대학교)

제 2 부
태고탄신 702주년(음 9월 21일)
* 대외 일자 : 불기 2547년(2003년) 음 9월 20일
제 6주제 태고사상과 한국의 정치적 갈등문제
제 7주제 정보산업 문명시대와 태고사상
제 8주제 세계평화의 문제와 태고사상
제 9주제 태고사상과 남북통일 문제
제 10주제 지구촌시대의 경제문제와 태고사상

태고학회 임원

삼 사 덕업(태고종장), 서업(전 조계종장), 송산(화계사 조실)
종 명 운산(태고종총무원장), 정대(조계종총무원장), 혜초(태고종승장), 원주(경선원이사장), 일우(태고종승장), 남표(태고종승장), 일공(원종승장), 법강(전 태고종총무원장), 무한(재, 일종승장)
고 문 서돈각(불교진흥원이사장), 순희정(국회의원), 송수자(동대총장)
자 문 위 원 성강(군불교진흥회장, 화계사주지), 도기(전국일불문도회장, 관음사주지), 청승(전 일종승무원장), 성각(한국불교승가회총연합회장), 현광(보림사주지), 인공(영산재보존회장, 봉원사주지), '동광(도선사, 청담북부재단이사장), 원성(강북사입원회장), 자철(태고종총무원부위원장), 정각(전 일종승무원장), 원운(태고종사정무원장), 한성길(금강선원이사장), 김철해(태고종선도원회장)
회 장 무공(태고종중앙포교원장)
상임부회장 대은(태고종법보대학장)
부 회 장 동봉(재, 일종승무원장), 도은(내자사주지), 법정(선암사포교장), 지족(태고종진흥문제위원장), 지공(재, 일종승무원장), 원해(태고종총무원장), 혜강(용화정사주지), 성선(사)21세기한국승가회이사장
심사위원장 서운길(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연구위원 권기홍(동대불교학회장), 정대혁(동국대명예교수), (회 원) 호형근(동국대명예교수), 김영대(동국대명예교수), 김성현(동국대교수), 법산(동국대교수), 종범(승가대총장), 허흥식(영신문화연구원교수), 성본(동대교수), 종호(동대교수), 이봉춘(동대교수), 김종표(동대교수), 박경준(동대교수), 장익(위덕대교수), 최원자(원광보건대교수), 김명봉(영산불교대교수), 진원(동국대명예교수), 주명원(동국대명예교수)
총무이사 법민(총회사무국장)
교무이사 성덕(수석사무주지)
재무이사 법민(재무사무주지)
사회이사 도광(약사사무주지)
포교이사 경담(태고종포교부장)
홍보이사 동우(태고종포교부장)
연구이사 도각(태고종진흥회장), 배민(영명사주지), 대용(불성사주지)
홍보이사 석원(선문학회)
국제이사 철안(서울불교진흥국장)
이 사 혜천(재, 일종승무원부위원장), 덕봉(성곡사주지), 동원(재, 일종승무원부), 범우(전태고종재무부장), 법운(재, 일종승무원부위원장), 최원(재, 일종승무원부위원장), 법성(태고종경가남부위원장), 법성(재, 일종승무원부위원장), 경담(태고종포교부장), 법정(태고종포교부장), 성도(남가삼사주지), 삼원(능엄선원주지), 승덕(관음사주지), 대선(비리정사(대선사)주지), 환단(덕화사주지), 태일(담양선원주지), 지관(경도사주지), 혜성(성덕사주지), 우종근(영일불신대표), 최인순(우당사관음회장), 박법준(법보당, 무명사학회회장)
감 사 명종(재, 일종승무원부위원장), 김봉건(태고종총무원부위원장)

태고법손 5대 결의문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에 따라)

- 태고 법손 종단은 한국불교 종조종 중흥조이신 태고탄신일 다례제를 반드시 봉행하자
- 태고 법손은 한국불교 종조종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 연구 선양사업에 동참하자
-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일불승사상 및 선교경수의 대법을 연구 수행 중흥을 진작하자
-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용 회통 통합의 정신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대화합과 통합을 도모하자
-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용불교실천 사상을 현대 사회의 모든 갈등 해소와 미래 인류 평화 및 복지진전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 승화하자

* 본 태고학회는 임원 의무금(년 1백만원)과 주최종단 및 단체의 후원금,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뜻있는 태고법손의 동참을 바란다.

불기 2545 7월 8일
서기 2002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무 공
서울 강북구 수유 4동 584-14,12(무량사내) 전화 02)904-0081,0016 / FAX 904-0083 / H-P 011-750-0016